

**소니 LCD TV 내년 3월까지 1000만 대 판매**



일본 소니가 2007년 4월~2008년 3월 회계연도에 목표로 세운 LCD TV 1000만 대 판매를 예정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소니 가전 사업을 총괄하는 이하라 가즈미 사장(사진)은 10월 4일 니혼게이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TV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삼성전자와 함께 세운 S-LCD에서 패널 증산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하라 사장은 증산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하라 사장은 소니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육성하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해 "LCD에 버금갈 만큼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며 "OLED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니는 오는 12월 세계 최초로 11인치대의 OLED TV를 양산할 계획으로, 이하라 사장의 이번 언급은 OLED TV 제조라인에 대한 투자로 보인다. 또 소니는 기존 DVD리코더 개발을 중단하고 블루레이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하라 사장은 밝혔다.

**MS, 차세대 플레이어 '준' 공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MP3플레이어 '준'(Zune)을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MS 본사에서 미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준은 애플의 MP3플레이어 '아이포드'를 겨냥해 만든 제품이다. 그러나 애플과의 승부와는 별개로 준은 MS의 차세

대 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제품 자체의 가장 큰 특징은 내장된 '무선랜'을 통한 파일 공유(Zune-to-Zune sharing) 기능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내 준 안에 있는 MP3 음악이나



사진 파일을 옆 친구의 준으로 간단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인터넷 서버나 기지국 등을 거치지 않고 기기끼리 자율적으로 통신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개념을 MP3 플레이어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MS가 지향하는 '소셜 엔터테인먼트'(Social Entertainment)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MS 관계자는 "단지 '내'가 즐기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함께 즐기는 것이 차세대 엔터테인먼트의 특징"이라며 "MS의 비디오 게임기 'X박스 360'에 온라인 기능을 넣은 것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MS측은 준에 동영상 공유 기능도 곧 추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준의 등장은 소프트웨어(SW) 업체인 MS가 하드웨어와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종합 IT기업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 비디오 게임기 X박스 출시는 그 서막에 불과했다. MS는 곧 준을 기반으로 한 휴대폰까지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윈도비스타OS 호환 DMA 출시**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하드웨어 업체들과 손잡고 애플TV와 유사한 기능의 디지털 미디어어댑터(DMA) 기기들을 잇달아 내놓는다.

AP통신은 MS가 9월 27일 뉴욕에서 개막

하는 디지털라이프 가전기기 전시회를 통해 윈도비스타 운영체제(OS) 호환 DMA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제품은 TV에 유선으로 연결해 사용되는 일종의 셋톱박스로, PC로부터 무선으로 전송받은 파일을 TV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MS의 DMA 기기로는 X박스360 비디오 게임기가 있지만, 사용시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발표될 전용 DMA 기기들은 소음발생을 대폭 줄여 홈 엔터테인먼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시스코시스템스 자회사인 링크시스의 윈도비스타 PC 호환 DMA로, 가격은 300달러다. 링크시스의 또다른 모델은 DVD 플레이어도 내장하고 있으며 350달러에 판매된다. 대만업체 D-링크의 제품은 플래시 드라이브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를 갖추고 있다. 이밖에 니비어스(Nivus) 미디어는 홈 시어터를 본격 구현할 수 있는 고급형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들 제품은 연말 연휴시즌에 출시돼 동종제품인 애플의 애플TV와 본격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키아, 향후 4년간 중동·아프리카 판매 두배로**

노키아의 티모 토이 카넨 중동·아프리카 지역



담당 부사장은 최근 두바이 미디어시티에서 열린 중동·아랍인 개소식에서 "지난해 노키아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6개국에서 1억600만대를 판매했다"며 "향후 4년간 이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이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의 17%를 차지한다"며 "이는 상당히 고

무적인 수치며 2010년엔 비중이 2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키아는 이 같은 성장세에 맞춰 기존 12개 지사 외에 요르단·쿠웨이트·우간다·알제리 등 8개 국가에 지사를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GFK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노키아는 최다 판매 비중 상위 10위 가운데 8개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삼성전자(SGH-E250)와 모토로라(F3)가 이름을 올렸다.

### 일, 차차세대 광통신 연구 5년간 300억엔 투자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과 손잡고 차차세대 광통신 개발에 향후 5년간 300억엔을 투자한다.

10월 1일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가 11월 NTT·후지쯔·KDDI·히타치·NEC·도사바 등 주요 IT기업과 손잡고 오는 11월 연구조직 '신세대 네트워크 추진 포럼'을 발족한다고 보도했다. 차차세대 망 개발에는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300억엔이 투자되며, 2015년에 완전 상용화할 예정이다.

차차세대 광통신은 올 연말 일본에서 개통될 차세대네트워크(NGN)보다 10배 이상 빠른 초당 10GB의 통신망으로 최대 1000억개 이상 단말기의 동시 접속 가능하다. PC·휴대폰뿐만 아니라, 감시카메라·의료용 센서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의 전송에도 끊김이 없으며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IBM, MS 오피스에 도전장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장악하고 있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에 IBM이 도전장을 던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IBM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 오피스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심포니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9월 18일 보도했다.

오픈소스 기반의 심포니는 워드프로세서와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돼 있어 MS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과 경쟁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오피스 문서인 오픈 도큐먼트 포맷(ODF)을 지원하며, MS 워드에서 작성된 문서 대부분을 읽어들이고 편집할 수도 있다. 무료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인터넷 구입가격이 120달러인 MS 오피스에 비해 사용자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IBM은 로터스 노츠 협업 소프트웨어의 최신버전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심포니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 독일도 11월9일 아이폰 출시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오는 11월 9일에 애플 아이폰이 출시된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독일의 아이폰 서비스 독점사업자를 T-모바일로 공식 결정하고,

11월 9일부터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폰은 독일 전역에 위치한 700여곳의 T-모바일 대리점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다. 소비자 가격은 399유로(557달러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에 비해서는 150달러 가까이 비싸다. T-모바일은 도이치텔레콤의 자회사로, 독일 이동통신 시장에서 3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1위 사업자다. 아이폰의 월 기본사용요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애플은 이보다 하루 앞선 18일에는 영국 아이폰 사업자를 O2로 공식 발표하면서 11월 9일부터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마쓰시타, PDP 생산능력 연 660만개로 끌어올려



마쓰시타전기가 PDP 생산 목표치를 당초보다 10%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지신문은 마쓰시타가 현재 연 216만개 수준인 효고현 아마가사키 2공장의 PDP 생산능력을 내년 말까지 연 660만개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10월 2일 보도했다.

이는 당초 연 600만개로 예정했던 생산 목표에서 60만개가 증가한 것이다. 회사 측은 제품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쓰시타는 다음달부터 총 2800억엔이 투입되는 아마가사키 3공장 건설에도 들어간다. 3공장의 생산라인 전체가 가동에 들어가는 2009회계연도(2009.4~2010.3)에는 PDP 제조능력이 연간 2300만개로 급증하게 된다.

### HP, 맥더미드 컬러스팬 인수

HP는 최근 미국 맥더미드 인코퍼레이티드의 자회사인 맥더미드 프린팅 솔루션 LLC와 최종 계약을 맺고 대형 포맷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 업체인 '맥더미드 컬러스팬'을 인수한다고 9월 17일 공식 발표했다.

맥더미드 컬러스팬은 디스플레이 그래픽 UV 경화(UV-curable) 잉크젯 프린터를 제조하는 업체다. 간판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퀵 프린터, 중·소형 간판 스크린 프린팅 제품 등을 주력 판매한다.

이번 인수로 HP는 프린트 서비스 공급업체를 위한 원스톱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또 간판 제작과 퀵 프린팅 시장도 신규 진출할 계획이다.